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음주 실태

1. 성인 음주율 추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1989년 이후 20~59세 성인의 음주율(인구 100명당 현재 음주자 수) 추이를 보면 1989년 45.8%에서 1998년에는 52.1%로 증가하였다.

건강상 문제가 되는 고도 음주율(인구 100명당 1달 <표 1> 성인(20~59세) 음주율 추이"

(단위: %, 명)

구분	1989년	1992년	1995년	1998년 ²⁾
전체	45.8	46.8	35.5	52.1
남자	79.8	74.9	56.8	72.4
여자	23.2	22.2	15.3	32.7

주: 1) 1998년 연령별 인구조로 연령표준화함.

2)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을 제외한 경우임.

자료: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각년도 「국민건강 및 보건 의식형태조사」

<표 2> 성인(20~59세) 고도 음주율 추이"

(단위: %, 명)

구분	1989년 ²⁾	1992년 ²⁾	1995년 ²⁾	1998년 ²⁾
전체	6.8	6.0	6.6	6.0
남자	13.2	12.2	12.8	11.2
여자	0.9	0.6	1.2	1.3

주: 1) 고도음주율은 연령표준화되지 않음.

2) 1989년, 1992년, 1995년 결과는 '거의 매일 음주자 비율'이며 1998년 결과는 '월 21일 이상 음주자 비율'임

자료: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각년도 「국민건강 및 보건 의식형태조사」

간 21일 이상 음주자 수)은 1989년 6.8%에서 1998년 6.0%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세 이상 성인에서는 남자의 11.2%, 여자의 1.3%가 한 달에 21일 이상 음주하는 고도 음주자로 나타났으며, 특히 60대 남자의 고도 음주율은 22.3%에 달한다.

2. 한달 음주 일수

1998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달 간 평균 8일 음주하고 있으며 남자가 10.8일, 여자가 4.2일이었다. 한달 동안의 음주 일수는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의 경우 농업 및 어업 종사자들이 한 달에 약 16일을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단순 노무직 근로자들이 약 13일, 서비스 및 판매직 근로자들이 12일로 높았다. 여자의 경우는 서비스 근로자 및 판매 근로자들이 6.12일로 가장 음주 일수가 많았으며 다음으로 무직자,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순이었다. (표3 참조)

3. 음주 의존

개인의 음주에 대한 의존도를 파악하는 CAGE 검사는 「① 술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②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남들이 비난할 때가 있습니까?», 「③ 음주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까?», 「④ 술 마신 다음날 아침 불쾌감을 없애고 기운을 차리기 위해 해장술을 마실 때가 있습니까?」의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 나도 해당되지 않으면 알코올 의존이 없는 것으로 1개는 미미한 정도, 2개는 보통, 3개는 심각, 4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본다.

조사 결과 미미한 정도의 알코올 의존





<표 3> 직업별 한달 음주 일수

(단위: 일)

직업	한달 동안의 평균 음주 일수					
	전체 (M/Sd.)		남자 (M/Sd.)		여자 (M/Sd.)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8.64	(6.05)	9.12	(6.21)	4.5	(1.33)
전문가	6.30	(6.67)	8.45	(7.34)	2.34	(1.78)
기술공 및 준전문가	7.93	(6.96)	9.51	(7.09)	4.06	(4.81)
사무직원	7.32	(6.82)	9.06	(7.09)	3.66	(4.33)
서비스 근로자 및 판매 근로자	9.59	(8.93)	11.99	(9.21)	6.12	(7.22)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12.57	(11.24)	16.09	(10.88)	5.35	(8.1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9.63	(8.09)	10.43	(8.08)	3.60	(5.15)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8.96	(8.46)	9.22	(8.50)	1.87	(2.00)
단순노무직 근로자	9.22	(9.36)	12.50	(9.88)	4.22	(5.57)
군인	6.76	(4.22)	6.76	(4.22)	-	-
학생(재수생)	4.80	(4.59)	5.75	(4.92)	3.16	(3.42)
주부(집안일, 가사)	3.30	(4.56)	-	-	3.28	(4.51)
무직	9.25	(9.35)	11.03	(9.68)	5.71	(7.51)
전체	8.00	(8.40)	10.76	(8.93)	4.22	(5.76)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999

이라도 해당하는 사람이 거의 30%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 성인들의 알코올 의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4. 음주량

음주자의 1회 음주량은 2홉 소주 2잔 이하를 마신다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아 48.0%였으며, '소주 반병을 마신다'가 25.0%, '소주 한 병을 마신다'가 20.9%를 차지하였다.

<표 4> CAGE 검사에 의한 20세 이상 성인의 음주 의존도

해당 문항수	명 (%)
없음	7780 (72.2%)
1개	1582 (14.7%)
2개	742 (6.9%)
3개	511 (4.7%)
4개	158 (1.5%)
전체	10773 (100.0%)

자료 :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6> 성별 현 음주자의 과음 빈도, 20세 이상 성인 (단위: 명)

구분	계(N)	과음 안함	1년 1~3회	3개월 1~3회	1개월 1~3회	주1회 이상
전체	100.0(7,369)	48.5	22.9	13.2	10.7	4.8
남자	100.0(4,262)	29.8	27.2	19.0	16.5	7.5
여자	100.0(3,107)	74.1	16.9	5.2	2.7	1.0

자료 :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5> 성별 현 음주자의 1회 평균 음주량 분포, 20세 이상 성인

(단위: %)

구분	계(N)	소주 2잔이하	2홉소주 반병	2홉소주 1병	2홉소주 2병	2홉소주 3병
전체	100.0(7,369)	48.0	25.0	20.9	4.9	1.3
남자	100.0(4,262)	26.3	31.1	32.4	8.2	1.9
여자	100.0(3,107)	77.7	16.5	5.1	0.4	0.4

자료 :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과음 빈도

과음 빈도는 현 음주자에게 '지난 1년간 몸이 만취하도록 과음한 횟수'를 질문하여 파악하였다. 전체 음주자의 4.8%, 남자 음주자의 7.5%, 여자 음주자의 1.0%가 주 1회 이상 과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72